



의정부 엑소더스 후원 후기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매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지난 2017년 7월 23일 자 서울주보에 소개된 <의정부 엑소더스>는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소속 이주민 지원센터로 난민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곳입니다. 그동안 후원금 부족으로 난민·이주 아동에게 직접적인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이 힘들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고 284명의 후원자께서 36,191,77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금 중 8,963,470원은 2명의 필리핀 미등록 이주아동의 병원비로 사용했습니다. 남은 후원금은 앞으로 치료하게 되는 난민·이주 아동의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1. 필리핀 미등록 이주아동 '노렐아바'

노렐아바는 2014년 뇌출혈과 사지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섭식장애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기에, 위에 연결한 관으로 음식을 섭취하며 누워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결국, 2016년 노렐아바가 숨을 거뒀는데 그동안 쌓인 병원비가 1억이 넘었습니다. 노렐아바의 부모는 필리핀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공장 컨테이너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상황이라 병원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와 의정부 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을 비롯한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거의 해결했는데 4,963,470원의 병원비가 아직 남아있어 사랑의 손길 후원금으로 해결했습니다.



2. 필리핀 미등록 이주아동 '자밀라루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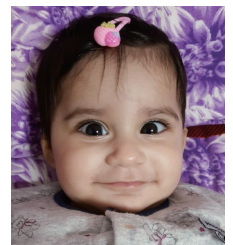
2017년 1.12kg의 몸무게로 태어난 자밀라루이사는 태어날 당시 움직임과 울음소리가 미약했고 호흡곤란과 흉부함몰이 관찰되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현재 호흡과 폐

출혈 문제를 비롯해 뇌출혈 상태를 보이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재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밀라루이사의 부모는 비자만료 후 미등록 체류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6,000,000원의 병원비 중 보건복지부, 이주민건강협회, 병원 사회사업팀의 지원을 받고 남은 4,000,000원을 사랑의 손길 후원금으로 해결했습니다.



3. 방글라데시 이주아동 '문타하'와 '인자라'

2016년에 태어난 문타하는 외이와 내이가 모두 불완전하게 태어났습니다. 귓구멍은 막혀있었고, 외이의 형태는 작았습니다. 아직은 너무 어려서 귓구멍 수술을 통한 청력 회복은 무리입니다.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문타하는 언어습득을 위해 보청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2018년에 태어난 문타하의 동생 인자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선천성 외이도 폐쇄(양쪽 귀 폐쇄)에 양 볼에 흑이 달린 채로 태어났습니다.



문타하의 아빠 니푸 알메드는 한국 섬유회사에서 일하던 중 엘리베이터에 허리가 끼는 사고를 당하고 현재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 외상 후 요도 협착, 궤양성 결장염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가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라 아이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손길 후원금으로 문타하와 인자라 자매의 병원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